

STX, 풍력발전설비 신기술 개발

STX중공업의 자회사 STX윈드파워가 새로운 풍력발전설비 개발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STX윈드파워는 2MW급 고효율 풍력발전설비를 개발해 최근 시험제품을 네덜란드 Lelystad 실증단지에 설치했다고 8월8일 밝혔다.

블레이드 길이 45.3m, 회전 지름 93.3m 모델로 STX윈드파워가 개발한 풍력발전설비 중 최대 크기로 알려졌다. 단일 메인 베어링을 사용해 동급 발전기 중 최경량을 실현했다.

특히,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기존 모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어리스 타입을 적용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접목했다.

STX윈드파워는 공인기관의 실증인증시험을 거쳐 오는 8월12월 기술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STX윈드파워 관계자는 “STX가 보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계열사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풍력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1/08/08>